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定價 一個月 八十錢 ... 廣告料 ... 發行所 朝鮮日報社 ... 編輯兼發行人 ... 印刷人 ...

社說

資本帝國主義의 煩悶
中國의 現象에 鑑하야

一

資本主義가 發達되는 過程에 잇서 自國內에서 一定한 發達을 遂하게 되면 必然的으로 다시 帝國主義的 經路를 밟게 되나니 十九世紀以來 殷殷然히 發達하여 온 모든 資本國家들의 成長發達하여 온 經路를 살피어 보면 明白히 了解할 수 잇슬 것이다 元來帝國主義 그것이 經濟的 利益을 前提로 하고 發達된 事實에 對하야는 이제 새삼스러히 容疑할 바이 無하거니와 資本國家가 海外에로 帝國主義的 發展을 遂하게 되는 同時에 植民地爭奪 즉 原料地와 市場을 占奪하는 競爭을 廻避하기 不能한 것이다 보라 近世史의 血痕이 淋漓한 記錄의 어느 것이 經濟的 利害關係를 中心으로 한 角逐이 아니엇는가 處女地를 占據하기 爲하야 亞弗利加 亞米利加 濠洲等地에서 白熱的 競爭이 잇섯고 弱少國家를 侵略征服하기 爲하야는 太平洋沿岸에서 又는 東歐半島에서 猛烈한 戰鬪가 反覆되엿다 그 동안에 果然資本主義로 英米를 筆頭로 獨佛日等諸國에서 爛熟히 發達되게 되엿다

二

이와 가티 各國에서 資本經濟가 爛熟히 發達하는 同時에 自體內에 包容된 矛盾的 發展으로 날마다 排發되는 煩悶이 極에 達하야 畢竟 世界大戰爭을 惹起하고야 만 것이다 다시 말하면 各資本國家들은 自國의 恐慌을 緩和하기 爲하야 海外的 行動을 行함에 互相間에 衝突이 不絶하는 結果 그들은 畢竟戰爭으로서 征服이냐 被征服이냐 雌雄을 決하게 되엿다 이와 가튼 動機에서 自國의 經濟的 煩悶을 救治하기 爲하야 戰爭을 이르키어 四年三個月동안을 持續하면서 千餘萬의 人命과 千餘億의 富를 犧牲하엿다 그러나 그 結果는 戰勝戰敗의 何國을 勿論하고 한갓 經濟的 煩悶을 一層助長함에 그치엇다 여기에서 『資本經濟는 自體의 墓穴을 自己가 파드러간다』는 原理를 事實로 證明하고 말엇다 그리고 오즉 資本主義 自體의 가장 抵抗이 弱한 部分인 露國에서 그 最後의 沒落을 促進하엿슬 뿐이엇다

三

이러틋 自己匡救를 目的으로 한 戰爭이 도로혀 自己殲滅의 結果를 齎來하게 되야 戰後의 資本帝國들은 風前의 燈火와 如히 破綻의 危機에서 呻吟하게 되엿다 戰後의 各種의 國際的 會合이 一律的으로 死中求生의 姑息策이엇스며 獨逸에 對한 苛酷한 壓迫과 모든 反動勢力의 擡頭가 大槪氣息이 奄奄한 殘命을 延長하기 爲한 最後掉尾에 不過한 것은 이제 다시 指摘할 必要가 無하다 그리하야 戰後八年을 經한 今日에 오히려 各資本國은 安定될 바를 아지 못하고 反動的으로 煩悶하고 잇다 그 가온대에서 오즉 新進資本帝國인 米國만이 金權으로써 世界征服을 夢想하고 잇슬 뿐이다 이와 가튼 現象에 處한 世界資本帝國은 西歐에서 또 쓰 米을 思索하야 姑息的 觀念的 偸安을 得하는 同時에 다시 侵略의 銳鋒을 發利케 하여 가지고 用하야 世界的으로 弱少民族을 搾取함에 當하야 그 銳鋒이 太平洋沿岸 東亞大陸으로 集中되고 잇다

四

그런데 大戰의 試鍊을 밧고 自覺이 一層促進된 모든 被征服弱少民族들은 資本帝國의 羈絆으로부터 解放되라는 運動을 開始하고 모든 資本國家內의 無産階級들은 勞農露西亞의 勃興에 刺激을 受하야 自階級과 自國의 帝國主義的 侵略이 自階級과는 何等의 利益이 無히 一部資本階級의 富를 增長함에 不過한 事實을 看破하는 同時에 그 運動이 世界的으로 促進되고 잇서 資本帝國들의 侵略의 步武가 非常히 艱難하게 되얏다 지금 中國의 全土를 風靡하는 排外運動은 實로 這間의 消息을 말하는 것이다 本國의 天産物이 豐富치 못하야 植民地와 弱少國의 侵略으로써 資本主義經濟組織을 維持하여 가지 아니치 못하게 된 日本國家의 苦悶은 最中尤甚한 바 잇슬 것이 必然한 結論이니 目下中國에서 排外運動이 日英을 目標로 하고 이러나는 것이 엇지 偶然한 現象이라 할 바이라 吾人은 가장 興味잇는 눈으로 資本帝國主義의 煩悶相을 縮觀하고저 한다

佛國議會三大問題 今週中에 討議한다

(巴里十六日發) 佛國議會에서는 今週 『모롯코』問題, 財政問題及選擧法改正問題의 三大討議가 行할터이라더라

佛飛行家新記錄

(巴里十六日發) 佛國飛行家 『아리 메군조』는 二千八百十 粁米를 十四時間五十八分으로 飛行하야 長時間飛行平均速力에 關한 陸軍의 新記錄을 지엇더라

局子街에 一大示威
排外의 火焰은 間島에도

十四日 局子街 師範學校生徒 六十餘名은 校長을 毆打하야 人事不省이 되게 하엿는데 原因은 上海學生團에서 同校에 送한 排外宣傳文을 隱匿하고 生徒에게 示치 아니한 까닭이라 事件은 漸次擴大하야 十六日부터 師範學校、高等學校、女學校、小學校生徒 一同은 一齊히 同盟休校를 하엿고 右學生團은 天圖鐵道從業員에게도 同盟罷業을 勸告하고 多數한 宣傳文을 印刷發行中인데 二十二日은 間島及琿春一帶의 生徒全部가 局子街에 集合하야 大大的 示威行列을 하고자 目下準備에 奔走中이라더라 (間島支局特電)

香港秘密結社
中國에 武器供給陰謀
英國、和蘭、獨逸聯絡

(상해十六日發) 英國新聞이 詳細히 報道하는 바에 依하면 今番香港에서 英國、和蘭及獨逸과 連絡을 取하야 中國에 武器를 供給할 秘密結社가 發見되여 五名이 逮捕되엿다는데 右事件은 最近의 中國時局에 關聯하야 相當히 疑惑되더라

英人二名又被殺
重慶學生團의 直接行動

(重慶電) 十五日午後四時半重慶對岸에서 稅關의 英國人二名이 學生及苦力에게 殺害되엿는데 學生團은 日英兩國人만 보면 直히 直接行動에 出하야 頗히 危險한데 中國當局은 嚴重한 取締를 하야 在留民은 幾分安心하나 太半은 租界에 避難하엿다더라

中、治外法權撤廢를
米國外交委員長이 主張

(華盛頓電) 米國上院外交委員長 『보라ー』氏는 中國問題를 論하되 中國의 治外法權은 될수잇는대로 速히 撤廢하는 것이 主로 中國의 領土安寧의 保全及大國民으로서 中國의 國權을 尊重하는 政策을 取코저 한다 斷言하엿다 同氏는 倘米國이 決코 今回의 紛擾의 渦中에 引入되여 드러가서는 아니될 줄 思한다 論하엿더라

中國關稅會議
今秋에 開催

(東京電) 中國示威運動에 依하야 念慮하되 佛國議會의 對中諸條約 七月十日의 議會閉會前外지 全部批准을 終了할터이라는 報가 잇서 關稅特別會議는 今秋十月頃 北京에서 開催될 것이 無疑하다더라

日本商議聯會

(東京電) 全國商業會議所聯合會第一日은 東京商議所에서 開會 各會議所代表三百餘名出席 指田東商會頭議長이 되여 會計委員五名의 選擧를 하고 朝鮮의 鐵道網普及速成에 關하야 要望의 件 (京城) 滿洲로부터 日本으로 가는 送金爲替를 圓滑히 하도록 當局에 要望한 件, 曹達工業의 獨立에 關한 建議의 件 (大連)

外資輸入緊要
政友會主張

(東京電) 政友會에서는 產業立國의 見地로 大히 國內生產工業의 勃興을 獎勵하고 此에 伴한 日本財界의 發展과 景氣의 振興을 圖코자 此際外資輸入의 緊要한 事를 主張하는 者가 多한 貌樣이라 此는 近年日本財政의 困迫과 財界不況不振에 鑑하고 且現內閣의 消極政策은 一層 經濟界의 不況을 助長하는 者로서 此를 救濟할 方途는 外資輸入에 依하는 外에 他道가 無하다 함에 在하며 今後政友會의 重要政策이라 稱하더라

豫算確定은 誤傳
問題는 自今으로
小川法相談

(東京電) 世間에서는 政府는 旣히 閣議에서 明年度豫算編成에 就하여는 前年度와 同樣으로 緊縮方針을 取하기로 決定하엿슴으로 別로 地租移讓이며 又는 其他 一切의 新規要求는 到底히 容認치 아니하리라 하야 政友會의 主張하는 地租移讓은 只今에 이르러서는 如何히 하던지 할 수 업겟다고 傳하는 者도 잇스나 그것은 錯誤된 豫測이다 明年度의 新政策에 關하야는 아직 何等의 協議가 업다 問題는 일로부터이다 前日에 決定된 豫算槪算方針이라는 것은 單히 大體의 方針인즉 誰某이던지 其大方針에 異議가 잇슬 것이 업다 그러나 오즉 實際로 豫算을 作成함에 當하야는 種種의 問題가 起하는 바 如何한 問題가 如何히 解決될는지 今後의 研究와 協議를 待치 아니하면 아니되겟다 又地租移讓에 就하여도 아모조록 明年度부터 實行하기로 決定한 것도 아님으로 誤解가 업기를 바란다 云云

朝鮮阿片取締令
十六日閣議附議

(東京電) 朝鮮阿片取締令案은 伊來法制局과 各關係當局과의 間에 合議中이더니 近者法制局의 審議가 終了되엿는 故로 아마 十六日의 定例閣議에 附議決定하게 될 터인데 其要旨는 左와 如하더라

一、朝鮮阿片取締令案 從來朝鮮總督府에서 阿片專賣制度를 實施하엿섯는데 現政府는 行政整理의 見地로부터 十四年三月末日을 限하야 此를 廢止하엿기 때문에 此의 善後處置로 取締規則을 設한 것인데 右阿片專賣制度의 廢止는 國際關係上으로 보아서 又阿片栽培藥의 實際에 鑑하야 遺憾인 點이 有하나 旣히 廢止를 實行한 以上不得已 今回에 姑息的인 取締方法을 向上코자 한 것인데 阿片의 栽培는 從來와 如히 許可하야 此를 總督府에서 一時保管하엿다가 栽培者와 製藥會社와의 直賣取引은 個人契約으로 하게 할 터이라

六校聯合庭球
優勝은 堤川軍
堤川에

忠北堤川郡淸風公立普通學校에서 去十二日에 堤川、平澤、德山、寒水、鳳陽、水山의 六個公普校聯合庭球大會를 開催하얏는데 優勝旗는 堤川公普校四年生安泳鎬組에 歸하얏다더라 (堤川)

靈岩勞働講演
韓氏來鄕을 機會로

靈岩勞働會에서는 今般還鄕한 韓覲相氏의 滯在中을 機會로 하야 勞働講演會를 去十二日下午九時부터 朝南學院講堂에서 內外에 가득한 聽衆에게 만흔 感興을 주고 無事히 同十二時頃에 閉會하얏는데 當日演題와 演士는 如左하얏다더라

一、내가 듯고 본 社會 柳赫
一、勞働運動의 現狀과 將來 曹克煥

盛況을 뵈인 全州東西音樂
(全州)

旣報=全州靑年會主催인 東西音樂大會는 豫定과 如히 去十三日午後八時半부터 全州公會堂에서 代表委員林澤龍君의 開會辭로 비롯하야 朴永喆、李鍾杜 두 어린 同伴의 『天眞의 웃음』이란 『이곳이 조란』으로부터 演奏가 열리엇는데 定刻前부터 雲集한 觀衆은 順序를 따러 米國人安道氏의 獨唱과 全永淑女史의 獨唱은 더욱 熱中한 多數觀客에게 喜悅의 感을 惹케 하얏스며 十分間休憩가 잇슨 後 第二部인 朝鮮音樂이 始作되엿는데 特히 崔坤德外 諸氏의 淸雅한 管絃樂은 一般聽衆으로 支離한 것을 忘却케 하야 만흔 興味를 주고 午前零時十五分에 이르러 無事히 閉會하엿는데 當日에 聽衆의 同情金이 遝至하얏슴으로 부터 만흔 同情金은 如左하다더라

宋始鎬一圓四十八錢 (二日貸金) 李熙祥三十圓、李振汝三圓、李致仲五圓、東亞報支局五圓 朝鮮報支局五圓、白樂元五圓 宋台鎬十圓、金永燦五圓、李傑三圓、李瀅根五圓、全州衡平同盟一封、朴敬愛女史三圓、成基石三圓、徐廷旭二十圓、朴綾雲容顚二圓、尹仁上母親金一封、李漢麟、金基仲五圓、李熙溪金一封、金駟燮三圓、李哲鎬、崔金東洙、韓龍男、西門外勤勵會 年會一封、衡平全州支社五圓 鄭貞男二圓、全州女子靑年會十三圓 (全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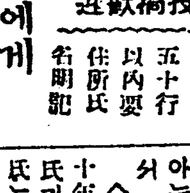
一、우리ㄴ 솔자 鄭曉相

榮山普校 期成會委員會
河東秀는 永久排斥할터

年來宿願인 榮山普校는 面民의 熱誠과 委員의 努力으로 因하야 預定의 寄附金도 발서 完了되야 開校準備에 紛忙中인데 諸般事項을 協議키 爲하야 去十日午前十時 榮山面事務所에서 委員會를 開催하고 敷地와 位置問題를 討議하고 速히 當地駐在所長이 登壇하야 『普校指定寄附金을 支拂치 아니하야 面民과 反目中에 富豪河東秀는 前非를 悔改하고 多少反省된 貌樣이 보이니 面內親睦을 爲하야 幾許의 金額이라도 밧고 다시 握手함이 如何오』 하고 委員을 勸하얏스나 委員側에서는 河氏를 除討하야 斷交를 決議한지가 不過幾月에 幾百圓寄附를 爲하야 公共事業에 害毒物이며 社會의 公敵을 握手하지 않는 將來모든 事業에 不幸을 招致함이라 하야 斷然히 拒絶하얏다더라 (榮山浦)

高敞에 女子夜學
五日부터 開學

高敞郡高敞面邑內里에 잇는 女子夜學은 吳姓女吳允玉金明善三氏의 發起로 高敞女子夜學을 創設하고 五日午後九時부터 當地公立普通學校講堂을 借用케 되야 同校先生되는 郭琪宜氏와 鄭琪煥兩氏의 誠力下에 四十四人되는 女子를 甲乙二班으로 난호아 敎授하는 中인바 將來가 有望하다더라 (高敞)



投稿歡迎
十四字 五十行 以內 要 住所氏名明記

光熙町人士에게
告함

◇저녁밥을 먹은 後 光熙町一丁目과 二丁目이 交叉되여 잇는 곳으로 지내려면 『셍ー셍ー』하고 흘너나오는 鍾소래를 드를 것이다 그리고 방열時가지내면 三十餘歲의 婦人과 十歲未滿의 어린 少女들이 冊褓를 엽헤 끼고 活潑히 거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잇스리라 洞里사람도 아는 이는 알고 모르는 이는 모른다 남들이 아는 듯ー모르는 듯ー 밤마다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朝鮮의 敎育界를 爲하야 十年間이나 從事하든 白亨基氏가 昨秋에 同地로 移居한 後 氏는 特히 돈 업는 사람ー더욱이 朝鮮女子社會를 爲하야서ー벌서 三個月前에 培花女學校 分校校舍를 비러가지고 女子夜學을 始作한 바 現在學生이 百餘名에 達하며ー그 들 中에는 近四十歲의 老人이 밤마다 흠을 내여서 工夫를 하는 이가 여러 사람이라 한다

마나 必要하냐? 貧한 事業이냐ー 얼마나 ◇얼마나 필요하냐? 氏는 中白의 老軀를 쉬지 안코 밤마다 잠도 못자며 女先生을 도와주며ー時間마다 自己손으로 鍾을 흔들며 도라단인다 한다 氏ㅣ 培花分校에 事業을 爲하야 힘써도 음는 事가지 잇다 한다

◇누구나 퇴가 잇는 사람이면 同情을 앗기라마는 더욱이 압헤서 보고 잇는 光熙町에 사는 人士들은 自己의 누의와 自己의 어린 딸을 爲하야서ー 뎌욱 더 온誠 意가 잇서야 할 것은 勿論이다마는ー 自己의 責任을 避치 못할 光熙町人士는 힘을 다하야 同夜學에 새로운 曙光이 잇게 하기를 衷心으로 바라며 同夜學을 主宰하는 白亨基氏와 努力하는 女先生을 爲하야 健康을 祝한다 (Y生)

雄辯、野球開催
淸州靑年會에서 委員會의 決議로

淸州靑年會에서는 去十一日午後九時부터 淸州本報支局內에서 同會執行委員會를 開하고 左記事項을 決議하엿다더라

一、來二十日에 懸賞雄辯大會를 開催할것

一、來七月四日五日兩日間 全淸州少年野球大會를 開催할것 (淸州)

尙新鑛擴張
經營者變更後에

尙州郡洛東面城洞里에 新鑛業所가 數十年前부터 設置되야 以來만흔 鑛物을 採掘하든 바 去十三日부터는 該鑛業所各重役이 變更됨을 따라 鑛業所를 더 擴張하는 中인데 朝鮮人夫二百名으로 鑛物約七十噸을 採掘하얏다 하며 또는 來十月頃外지에는 約五六百噸을 採取하야 群山에 보내여 分析試驗에 着手를 하리라 하며 研究上必要로 來十一月頃以內에 工場을 設置할 豫定이라더라 (尙州)

陝川邑에 公會堂建築
柔道場兼用은 遺憾

陝川은 從來로 公會堂이 업서 一般에게 多小의 不便이 잇든 바 今般에 地方有志李景祥阿部警部左衛門兩氏의 發起와 其他地方有志諸氏의 贊成으로서 公會堂을 建築키로 되얏는데 그 집은 平家로서 建坪二十坪 建築費約一千圓을 要하는 바 地方有志로부터 義捐한 金額의 全部를 陝川警察署에 交付하야 同警察署로부터 建築하게 되엿는데 同警察署에서는 六月三日부터 方今建築에 努力하는 바 竣功期는 七月中旬으로 豫測하며 竣功後에는 柔道場으로도 使用하는 同時에 一般에 公會堂으로 使用케 할 터이라더라 (草溪)

延吉縣鄉長會
七條를 決議

延吉縣各鄕調鄕長會는 (調鄕長은 全部朝鮮人) 지나간 六日上午부터 局子街山海館內에서 會議를 열고 左와 如한 七條를 議決하다

一、各鄕、排員(即朝鮮人)稱查員一人式을 두어 匪黨과 및 民間에 이러나는 弊害를 調查케 할일

一、戶口를 詳細히 調查하야 成冊하며 兼하야 戶賦錢을 遺漏업시 收捧할일

一、民地와 學田을 種別하야 調查하되 新舊民의 各占한 總額를 區別하야 알일

一、官私立學校를 勿論하고 各種內容을 詳細히 調査하야 敎育當局의 便利를 贊助할일

一、時時로 田賈밧는 것은 敏速히 民間에 通知하며 督促하야 期限을 넘어 罰金處分을 當하는 일이 업도록 할일

一、各鄕中市長은 特別히 注意하야 私鹽偸賣를 嚴禁할일

一、地方警察分所의 罰金밧는 濫用을 못하게 할일

以上七條를 提議하야 가지고 同縣知事에게 交涉하야 實施하도록 한다는데 今回에 出席한 各鄕調鄕長과 및 代表者의 氏名은 아래와 갓더라 (間島)

志仁鄕代表 孫熙晉
尙義鄕調鄕長 姜明賢
崇禮鄕調鄕長 馬利龍
守信鄕代表 姜柳浩
春陽社調鄕長 朴昌燮

洪原救濟會募金
累計千三百餘圓

咸南洪原饑饉救濟會에 追後로 同情한 金額及氏名은 左와 如하다더라

洪原靑年會十八圓四十六錢 徐行奎 洪原公立普通學校職員一員各十五圓 李永薰 都明洙 劉鳳翊 金亨根 嚴泰明 池逸 健吉 申允淑各十圓 岡崎德 朱泳 沢朴景龍 稻箭沃 趙源球 乾德恒 羅祥鉉 朴瑞英 增田興平各五圓 北島邦造三圓 劉鶴鉉 興德商店 金鶴燮 新川綾太郞 前津駐在所 職員一同各二圓 韓尙櫃 尹元植 林在佶 都相敬 金甲永 嚴承駒 長要敬郞各一圓 金鶴鍾五十錢 累計金一千三百六十七圓二十一錢也 (洪原)

金化驛業績

客月中金化驛業績은 如左하다고 (金化)

乘車人員一六二〇人 降車人員一八四六人 發送小荷物一二五五個 到着小荷物一九四九斤 發送貨物一〇五四噸 到着貨物六〇二噸 乘車賃金一五八四圓六五 手小荷物賃金八四圓六六 貨物賃金一八四四圓六二 雜收入四七圓二四 入場料 八圓〇〇

新高山에도 脚戲와 運動

咸南新高山에서도 當地靑年會及市民의 周旋과 東亞本報兩支局後援으로 脚戲大會와 市民運動大會를 來陰五月五、六兩日間에 開催할터인데 特別히 今番은 從前보다 商品을 豐富히 授與하는 바 品目은 아래와 갓더라

一等大牛一頭 二等中牛一頭 三等廣木一疋 (新高山)

江陵佛靑總會
諸事業方針決議

江陵佛敎靑年會에서는 지난 六日午後一時에 臨時總會를 열고 臨時議長龍昌恩氏의 司會로 三十餘會員이 出席하야 左記事項을 決議하엿더라

一、音樂團設置의 件
一、讀書會設置의 件
一、體育部擴張의 件
一、文藝部는 每日曜下午에 雄辯討論에 關한 件等 (江陵)

咸南荷車檢查
不合格이 千餘臺

咸南道警察部의 本年春期荷車檢查成績은 正式으로 된 것이 五千五百三十三百四十五臺 四寸未滿鐵輪荷車一萬六千七百五十七臺로 合計二萬三千四百十一臺인데 檢查의 結果不合格된 것이 一千一百九十二臺로 使用禁止가 七百十四臺요 修繕改修를 命한 것이 五百十五臺며 罰을 當한 것이 五十六臺이며 (咸興)

水產製品檢查減少

元山稅關支署水產製品檢查所의 五月中의 水產製品檢查成績은 合格品이 七百四個로 外數量이 十一萬二千斤 價格三萬五千三百十一圓이오 不合格品이 十五個로서 數量이 二千斤인데 前月에 比하야 合格品四十三個 不合格品五十七個의 減少를 示하엿는데 그 原因은 五月中은 天候不良으로 海蔘의 生產이 減少하고 乾鰒製造가 終了한 結果인바 商取引은 各製品이 前月보다 好況이라더라 (元山)

穀物檢查成績

元山穀物檢查出張所의 本月上旬中米豆檢查高는 大豆檢查總數五百六十六叺인데 此內特等八十一叺、一等一百九叺、二等十五叺、三等百四十二叺、四等十九叺이며 玄米檢查總數四千十四叺인데 此內二等三百四十六叺、三等二千九百三十六叺、四等五百叺、不合格二百三十一叺이요 白米檢查總數四百七十叺인데 二等三百四十二叺 不合格六十五叺이며 大豆市勢는 目下特等二十四圓六十錢一等二十三圓七十錢二等二十二圓六十錢四等二十錢三等二十一圓六十錢으로 의 呼價로 依然活氣이라더라 (元山)

元山局通話數

客月中元山局에서 取扱한 電話通話度數는 市內八千七百七通話市外三千六百三十九通話呼出三百二十自働電話가 一百三十五通話이더라 (元山)

上海盟罷와 對中貿易
持久만 되면 打擊不少
南浦稅關署長談

中國에 擴大되여 가는 大同盟罷業으로 因하야 鎭南浦港에 波及하는 經濟的 影響에 對하야 鎭南浦稅關支署長中村勉三氏는 往訪한 記者에게 아래와 가티 말하엿다

上海盟罷事件이 鎭南浦港에 밋칠 影響말이오닛가? 盟罷事件이라야 始作된지가 오래지 아니하니까 아즉은 別般影響이 보이지 안습니다 그러나 鎭南浦港의 對中貿易은 그 總額이 二百八十萬圓 (昨年度에 不過하는 形便이닛가

設或 影響은 밋진다 할지라도 實로 微微할 것입니다 그런중에도 滿洲나 山東省貿易品을 除하고 보면 直接上海港과의 貿易品은 昨年度統計上으로 보아 輸入品中에 十三萬六千六百六十一圓의 麻袋와 三十八萬七千一百八十三圓의 鐵鋼이 잇슬 뿐이오 其他輸出品으로는 五千八百四十八圓의 苹果와 萬三千五百餘圓의 세멘트와 平壤製糖會社製의 砂糖이 잇슬 뿐입니다 그러나 其外에도 해마다 日本神戶나 門司를 經由하야 上海方面에 輸出되고 잇든 玉筋魚鹹魚乾貝乾蝦가 年額三十萬圓 어치식은 되엇다 何如間時局이 速히 收拾된다면 모르되 그럿치 아니하고 한두 달이라도 지금과 가튼 形勢를 持續하게 된다면 當港에 밋칠 經濟的 打擊도 不少할 것이다』 云云 (鎭南浦)

張氏의 敎育熱
大明學院의 曙光

義州郡松長面小水洞耶蘇敎會에서 設置한 大明學院은 將來數個星霜에 地方兒童敎育을 爲하야 만흔 貢獻이 有함은 本報에 旣報한 바어니와 特히 昨年부터 校舍를 新築하고 內容을 刷新하는 同時에 學監의 任에 當한 張鳳翽 氏는 발서 半年동안이나 無報酬로 熱心視務中우리 ...

優勝祝賀로
ー假裝行列ー

去九日 殷栗郡殷栗面에서 開催한 私立學校聯合大運動會는 大盛況을 呈하엿는 바 今回에 優勝旗는 光宣學校로 도라갓다는데 光宣校에서는 이를 祝賀하기 爲하야 翌日上午부터 同校校長李京俊統率下에 男女學生의 假裝行列이 잇섯다더라 (殷栗)

敎育界에 만흔 貢獻이 有望한 靑年이라 附近人士는 將來有望한 靑年이라고 稱頌이 籍籍하다더라 (義州)

平南春繭入札

平南道의 春繭掃立枚數는 五萬三千七百四十七枚인데 蠶兒의 發育狀況이 良好할 뿐만 아니라 桑葉의 伸長도 比較的 良好하야 桑葉의 不足은 無할 模樣인데 收繭의 豫想高는 二萬四千八百五十一石이요 本道春繭의 共同販入入札은 去十三日午前十一時半부터 消鑑顧問室에서 開催되엿는 바 入札者는 朝鮮人十五名 日本人五名이라 하며 道內를 五區로 分하야 入札하얏다더라 (平壤)

嶺美脚戲運動
準備會組織

京義線嶺美驛前嶺美市場에서는 例年과 가티 端午佳節을 利用하야 陰五月五、六日兩日間 脚戲運動會를 開催코저 去四日下午二時에 一般有志諸氏가 會合하야 準備會를 組織하고 豫算金三百五十圓은 有志의 寄附로 充當하기로 하얏는데 準備委員의 氏名은 如左하다더라

金燦鼎 安龍三 金信瓚 金周奭 安學淵 (嶺美)

黃州脚戲會準備
大規模로 進行
同情이 遝至

黃海道黃州邑에서는 黃州市民主催와 本報黃州支局後援으로 來端午節을 機하야 三日間 朝鮮脚戲大會를 黃州德月山下에서 開催한다 함은 旣報한 바어니와 其間同大會委員諸氏는 準備에 紛忙中이며 同會長金度淳 副會長任承鎬 總務金浩辭 會計朴在德 安永浩 監查姜濟植 書記金龍洙 審判李根榮 吳淳根 評議員趙承仁 劉顯祚 金永軾 宋昌勳 金相龍 崔炳尹景滋 選定된 任員과 同會를 爲하야 寄附한 人士의 氏名은 如左하다더라

◇寄附人士氏名
金鎭濟十五圓 興業會社十圓 李東熙 金致玉 片倉組 黃州郡廳 普通學校 各五圓 金錫珍 黃錫周 羅在鉉 吉尾商店 金潤璜 中井商店 李之松 志賀 恒彦 各三圓 尹東云 趙錫勛 李顯吉 金錫環 李道濟 趙東淳 趙觀洙 宋學謙 金宗汝 文斗煥 朴潤根 文藻 葉田 在鎬 林益根 源茂居 石井安次郞 李致寬 朴敏道 鞍騎貫一 裵鶴柱 金永楨 玉內河 盛草元 寅所 趙鼎鎔 金尙高 宋昌 福元 致容 金昌 西梶 木商店 金鳳云 尹景赫 西田源吉 森口 第吉 李珍馨 任柄鎬 金浩辭 各二圓 金麟洙 金興組合 各二圓 五十錢 林元楠 趙鼎錄 金基鎬 東亞日報支局 趙昌旌 趙爾涼 金尙弼 金永燮 金順吉 朴宗燮 永增 鏖 德泰 盛 李和 勳 吳 義瑞 金啓 淳崔 颯 植 張龍 成 金鎭益 韓瀅瑞 遠 行德 禹錫 時尹 之瑚 孔昌淳 金元淳 永信 洋服店 李貞鶴 朴浩根 魏冠鎬 木下理髮館 車宗勛 森口 商店 盧 永福 安承云 趙鼎鉉 家村 傳 次郎 金保鉉 朴濟河 徐致福 金鍚 奎 阪島 幸一 箱山 鐵 昌 浩 金內洙 東亞春元 勝茂七 酒 甘斗鍊 李富奕 高亨 李 鍾 泰 奎佐 佐木 後藤 勝榮 三郎 羅 斗 柄 石梯 幾雄 金永旭 三顯鶴 一 崔 鎭 鈞金 成龍 金 善 觀 金 炳 張西 トミ 康 熙 錫 梅 田 森 津 申在麟 李佳伯 徐致 淳 樂 京 鷺 金 義植 趙 鳳 學 高 野 館 用 田 永 順 恒 內 田 萬 吹 河 野 慣 長 谷 川 猪 毓 小 學 校 西元 吳 大 烈 森 口 甚 吉 海 井 象 一 內 田 商 店 洙 野 縣 大 郎 金 元 鐵 趙 昌 浩 金 在 變

海州各地에 脚戲
(以下畧)(黃州)

海州郡 海州面神光寺安養庵房主洪泰賢氏의 主催로 來陰五月五日 崇寺院境內인 信川橋에서 脚戲大會를 열터이라는데 賞品은 一等에 黃牛一頭을 비롯하야 여러 가지가 만히 잇다 하며 海州面翠野에서도 同五月端午節에 脚戲大會를 열터이라는 바 賞品은 中牛一頭 廣木一疋 日本木一疋 等 多數히 잇다더라 (海州)

金尙俊 社光賀 朴基變 牛島 木物工社 鄭承周 趙鐵浚 鄭斗 興 宋 漢 鎬 金成彰 朴亨 淑 洪 秉 周 安 鍾 俊 林洛煥 方中 日永樂 館 各一圓 永信木工所 備床 一個 河村 商店 手巾一打 內用 農 彦 手巾一打

平壤聯合基靑
會館建築寄附
近近許可될듯

平壤聯合基督靑年會에서는 會館建築寄附金募集件을 五月二十日附로 代表者金東元氏十三人의 名義로 提出하엿든 바 今月中으로 認可될 터이라는데 建築豫算額은 基址二萬三千圓 建物三萬七千圓 計六萬圓으로 平壤市內建物中 一大壯觀을 呈하리라 하며 寄附認許察者는 寄附認可만 나면 自願爭先하야 容易히 될 터이라 하며 寄附이 會館만 實現되는 日에는 會의 將來에는 隆運이 展開되리라더라 (平壤)

崔孃의 好評
幼稚敎養法의 越等

平壤崇義幼稚園師範科敎師崔順敬孃은 일즉이 東京에 留學하야 前後五六年間 幼稚敎育에 對하야 만히 研究하고 今春에 歸國하얏는데 當地幼稚師範學生 二十餘名을 熱心으로 敎授하야 그 成績이 從前에 比하야 매우 良好하다더라 (平壤)

汗浦少年會를
勇進少年團으로
名稱을 改正

汗浦少年會는 形便에 依하야 解散하고 去六月六日午後八時에 龐會源、尹明運、李耕稷 三氏外에 多數有志者가 當地禮拜堂內에 會集하야 勇進少年團을 創立하고 今年夏季休學을 利用하야 巡回劇團을 組織하야 가지고 地方巡回하리라는데 任員諸氏의 氏名은 左와 如하다더라

庶務部 龐會源 (書記兼任) 趙源行 文藝部 孫戊慶 尹明運 (書記兼任) 運動部 李耕稷 鄭南 司察 孫興安 (汗浦)

南川에 工藝學院創立

京義線南川驛前 南川市는 年前水害에 慘酷하게 됨은 一般이 周知하는 바이어니와 市區의 改定과 建物의 一新으로 速度에 發展됨을 따라 市民一般은 더욱히 經濟挽回策을 講究하던 바 近者에 車時中、張再植 其他有志의 發起로 爲先工藝學院을 設立하고 相當한 技術者를 招聘하야 去一日부터 開院式을 擧行하고 各藝術品을 敎授하는 바 科目은 染料、化粧잉크等 三十餘種이며 卒業後 當地에 藝術工場을 設立하야 本生徒로 하여금 藝術品을 製作하야 朝鮮人自作自給에 供케 하리라는데 만히 入學하기를 바란다더라 (南川)

果樹組合創立
長連에서

黃海道殷栗郡長連에는 果樹栽培業者가 四十餘人에 達한 바 業者間利害關係와 栽培上管理를 一致케 하기 爲하야 지난 九日에 當地祀樓에 會集하여 長連果樹園組合을 組織하엿는데 決議事項과 任員氏名은 左와 如하다 더라

◇決議事項
一、今年夏季에 果樹園에 對한 講習會를 開催할 事

◇任員
組合長莊元燦 副組合長林學隣 ...

定州樂隊來北
平北定

州私立樂隊는 風俗改良과 活動寫眞部에서는 西部朝鮮을 巡回中 去十一日에 北下洞에 來到하야 同北下洞靑年會와 同學校內에서 公演基督靑年會 少年會의 後援으로 二日間活動寫眞과 音樂會를 盛大히 擧行하엿는데 當日은 雨天임을 不拘하고 觀衆은 無慮五百餘에 達하얏다 하며 地方有志의 同情金도 不少하엿다더라 (定州)

書記白相淳 會計白道淑 監查李觀斗 理事李宅周 黃鵬相 白俊敎 全承源 片興宋 官元 善 (長連)

聖體式盛況

去十四日午前十時에 平南平原郡邑內天主敎會에서는 聖體擧行式을 擧行하엿는데 近來에는 無한 盛大한 禮式임으로 附近에는 求景하라고 來到한 사람이 無慮數千에 達하엿다더라 (平原)

平原敎堂增築
平南平

原邑內耶蘇敎會에서는 禮拜堂이 狹窄하야 遺憾으로 지내오던 바 一般敎人의 뜨거운 義捐金으로 增築하기에 着手하엿는데 來安州老會期日前에 竣役되여 會議에도 多大한 便利를 得하게 하리라더라 (平原)

長林公普運動會

平南成川郡長林公立普通學校와 附設速修農業學校에서는 陰五月端陽의 佳節을 期하야 學生大運動會를 開催한다더라 (成川)

仁川商議候補
來廿五日選擧戰

旣報=仁川商業會議所評議員選擧는 來二十五日午前九時부터 同日午後四時外지 同會議所樓上에서 行한다는 바 有權者의 總數는 五百十六人中 朝鮮人이 百三十八人 日本人이 三百七十八人으로 一昨年의 總數와 別로 差異가 無하며 就中 被選擧權의 資格을 有한 者는 朝鮮人이 九十三人 日本人이 三百十一人인데 前例에 依하야 朝鮮人五人 日本人十九人 總二十四人의 議員을 改選하기로 되엿다 한다 候補者云云의 說은 日本人側으로는 現任評議員인 坂倉伊平氏外 力武嘉次郞氏는 方今身病으로 靜養中에 잇서 出馬치 아니 한다는 說이 有하나 一方選擧人으로서는 兩氏의 出來를 痛喩하는 貌樣이며 朝鮮人側으로는 鄭世澤、金奎晃、張錫佑、朱命基、沈能德、劉君星、河相勳、鄭順澤、金奎鎭 諸氏인데 就中 鄭世澤氏는 新進人物로서 候補說이 매우 濃厚하며 金奎晃、朱命基、沈能德三氏는 事情에 依하야 出馬치 안켓다 한다 이 外에도 此際에 加하야 그 外의 新進實業人物이 多하다는데 商業會議所當局으로는 日本人側의 候補者가 定數에 未滿되지 안흘가 하야 憂慮하는 中이더라

仁普後援總會
仁川에

立普通學校兒童敎育後援會에서는 來二十三日午後三時부터 同校內에서 定期總會를 開하고 左記事項을 決議한다더라

一、大正十三年度決算報告의 件
一、大正十四年度豫算報告의 件
一、役員改選의 件
一、規約改正의 件
一、其他事項 (仁川)

◇寸鐵◇

【義州】 義州郡加山面警記金某는 己未年萬歲運動時에 다른 記는 出動치 아니 햇는데 오즉 혼자 出動하야 執務하엿다는 功勞로 表彰을 하리라고 面長으로 昇格이 나아 히지

◇

【海州】 日前張氏飛行機가 海州에 온다고 할 때에 面內에 잇는 各學校長會에서는 中等學生은 十錢、普通學生은 五錢式 收集하야 主催者에 주기로 되엿섯다고 아마 京城中等學校長으로 組織된 親和會와는 性質이 다른 듯한 貌樣

◇

【戲寧】 邑內某校先生李某는 우울에 쇠를 채우고 물 길너가는 婦女에게 『히야가시』가 一手라고 洞內婦人들의 不平이 만타 그와 가튼 者에게 敎授를 밧는 兒童들은 『히야가시』만 할 줄 발러 이지

◇

【綾州】 日前本欄에 綾州公立普通學校同盟休學事件이 잇슬 時에 『秘密의 暴露인지? 失望의 煩悶인지? 大路上으로 울고 가는 新女性이 잇다 그는 日鮮融和를 徹底히 斷行하라는 女先生이다 戀愛에는 國境이 업다지』 하는 記事를 본 當地駐在所巡査部長廣田某는 記者에 對하야 排日思想으로 쓴 것이 아니냐 또는 同盟休學을 煽動한 것이 아니냐 하다가 記者에게 코를 떼 낫다고 보히는 것은 모다 排日인가

本報押收

六月十八日附(十七日夕刊)本報第一千七百四十三號는 記事中 當局의 忌諱에 抵觸되야 祕賣禁止의 處分을 當하얏기로 該記事만을 削除하고 號外로 發行하얏기 玆에 謹告

朝鮮日報社

仁川期米 第二報
十七日

後場强硬

前場 阪地四十一圓五十五錢 止와 共히 三十八圓八十錢에 頑强이 場을 止한 當市場은 後場에 入하야 阪地初付 四十一圓五十六錢인 一丁 小高를 受하고 三十八圓八十六錢인 六丁反高로 場을 始한 後 阪地二節 五十九錢으로 更히 八十四錢外지 返戾 임을 據하고 八十九錢의 二番同事로 其後阪地五節五十九錢으로 止價亦五十九錢을 伴하고 六節八十一錢가지 下押하더니 結局八十四錢인 依然硬勢로 場을 止하니 高低의 差는 八丁이며 阪仁의 鞘는 二百七十五丁이더라

大阪場況
十七日後場

今日場阪地場況은 地場氣乘이 稀薄하야 四十一圓五十六錢에 場을 得하고 後東京高報로 賣物이 稀薄하야 五十錢外지 擢頭하얏스나 地場及米客筋으로 更히 池하엿스나 六十四錢의 賣로 五十九錢으로 또 小弛하야 止價도 結局五十九錢의 同事로 散會하엿다고

◇各地止價◇
十七日後止 昨止比較

大阪	四一、五九	一六高
東京	四二、八五	五六高
兵庫	四一、二七	一一高
下關	四一、八五	一〇高
桑名	四一、三六	三八高
夕後	四一、二六	三一高
名古屋	四一、四〇	二〇高
金澤	四一、三五	三五高
熊本	四二、一〇	三一高
仁川	三八、八四	三三高

◇阪仁氣配◇

大阪 二、三錢低
仁川 三十八圓八十錢見當

◇各限俵合◇
十七日後場

[illegible]

各處에爆彈投擲陰謀

大阪『쒸로친』黨連累逮捕

동경경시텽에서크게활동하야범인데포

십칠일 아츰 동경경시텽 고등과(東京警視廳高等課)는 형사부(刑事部)의 조력을어더 자동차를 팔방으로몰러 대활동을개시하엿는데 동경부하일모리(東京府下日暮里) 삼천륙백이십사번디 야구영치(野球英治)의 집에이르러 잠복한중인 대판『쒸로친』사잔당등강방일(藤岡房一)(二〇) 비권우치(備前又治)(二三)을 톄포하엿는데 그들은 목하공판중인 고전대차랑(古田大次郞)등의 뜻을 이어 불온문서를 인쇄하야 대판 경도(京都)명고옥(名古屋) 동경방면에 배포하고 폭탄을 각처에 던질준비를하는중인것이 탐지되야 활동을하게되는모양이라더라(동경뎐)

中和消防組幹部

總辭職

면장의압박에 크게분개하야

중화소방조(中和消防組)는본래 중화시장두량군(中和市場斗量軍)으로써 조직하얏스나임명과 퇴직에관한것은 경찰서장(警察署長)의권한에잇는바 요사이소방수한명의 결원이 생하얏는데 면장송보섭(面長宋普燮)씨는소방조간부와 협의도업시 자긔임의로 최모(崔某)를 경찰서장에게말하야 소방수로 임명케한후 어느날 최모는 소방조간부를보고 두량한『낙정』을말을되다가남은것을 논아달나고한즉 소방조간부는 최모에게대하야 논아줄수업다고한즉 최모는 면장에게로가서 그사실을말하매 면장은 소방조간부를 면사무소에 불너다노코 두량한『낙정』을

최모에 논아주라고말한즉 소방조간부는 면장에게대하야 논아줄수업다고말한즉 면장은 소방조간부에게대하야 만약논아주지안으면 면장의직권(職權)으로 논아준다고함으로소방조간부는 면장(面長)에게 대하야 면장의직권으로 논아주면할수업스나 우리로는 논아줄수업다고하고 경찰서에가서 서장에게 그말을한즉 서장은군텽(郡廳)에가서 군수와상의한결과군텽에서는 면장을불너다노코 소방수의 이동이생길때는 소방조간부와 협의하야 채용(採用)하라한즉 면장은 군텽에대하야 그리할수업다고 주장하야 결국아모해결이 업섯슴으로 소방조간부들은 면장의무리한압박에 분개하야 전부사직원을데출 하엿다는데 일반은매우 흥미를가지고 이사건의 장래진뎐을주목하는중이라더라(중화)

木浦貞明校遂閉門

학교당국의식언에분개하야

십오일에학생전부가퇴학해

목포 양동뎡명녀학교(木浦陽洞貞明學校)생도전부가리용준(李用俊)교사를배척하야동맹휴학을하엿다함은 두차보도 한바어니와 그동안그들은동교교장『마크레、합파』양과 만흔 교섭을한결과 교장도자연 량해를하고그요구에 응하야 다시는리교사를교문안에 발을드리지 안키로하고학생전부는 금월십오일 부터등교(登校)하야 하긔방학(夏期放學)시험에응하게 되여학부형까지의외로 쉬히해결됨을깃부게 녁이든바 그학생들은시험

준비를 하여가지고전과가티조회식(朝會式)에 일제히와서본즉 그림자만 보아도몸서리가나는리교사가아모렴려업시불이붓는듯한학생전부는하나님교사반렬에서여잇슴으로두눈에의례배(禮拜)도너갈니로 가라하고 감정이날카로운딸로 책임잇는 당국자로써 식언(食言)함을 질문하며 학생요구의확인여부를무른즉 교장으로부터학생신분으로는 학도의 일만하고교사의 처리는교장의 처분이다는함으로그들은소리처 교사일인을위한 학교인가 사백명학생을위한학교인가하고

공긔가 극도로 긴장하여지매 서양인관리자측으로는우리의돈으로 설립한학교는 우리맘대로하는데 만일불복하면 또차낸다함으로 그들의 흥분은비애(悲哀)의표정으로변하야이런로예뎍 교육은배우면 무엇하나조선인을 모욕하는학교를 단이면무엇하나 하고교문을 차고뛰여나오매학교당국은

시험을 보라고 붓잡거니 학생은 뛰여나오라거니하야 교실은 일시수라장(修羅場)으로화하엿다하며 엇더한 사정으로인하야 시험에 응한몃몃학생이잇섯는데 일반학생은 다시험장에 뛰여드러가서 폭행을함으로보호로섯든 서양인들은교측을붐복하는 마귀색기는 디옥으로가라」하고학생들의덜미를집펴내여쫏는 광경은보는자도 분함을참지못하엿다는데학교당국은새학생을 모집하야 개교하겟다하고 동일오후부터 교문을닷고긔숙사학생전부는하로사이로곳퇴사(退舍)하라고명하엿다더라

宣教會에서解決

자긔는처리키가 어려운중대문데

마크레校長談

뎡명녀학교 동맹휴학에 대하야 교장『마크레、합파』양은 말하되 이번사건은 어데로보든지 유감천만이나 사건이사건임으로 자긔단독으로는 처리할수업고 일간개최되는선교회(宣敎會)에서 결뎡할터인데 어데까지 원만하도록 노력하겟다더라

生徒압박에서自擬

추태종종의 리교원

도리혀감정을샀다 某敎員談

동교교원들은 말하되 리교사와 학생사이에 불평은 오래전부터 잇섯스나 이번에 폭발되기는 조효선(趙孝善)이란학생의 퇴학이원인인데수속상(手續上)으로는 자퇴학(自退學)이나리교사와 교장만알고 커리함을보아 리교사가퇴학을 식힌줄로아는 학생도 그리무리가아닌 듯할뿐아니라 컨긔 조효선은 그리한 리유가 컴대로업다 고인뎡한다하며 다소간안뎡된 학생이 다시긔분이 험악하여짐은오날아참여덜시에 리교사가 긔숙사에가서 일반학생압헤서 말하기를 자긔는학생을 퇴학식힌일과 녀학생을대하야

호년한 일과면살잡고따린날이 컨부업는데 이거짓신건은 죽어도잇지못할바이즉 만일사실이라하면 그벌을 여러학생압헤당하겟다하고 준비해가지고온 매세개로써 자긔팔뚝을 피가나도록 초날하야 학생들을 엄감을주게함이 유감이라하며 시생으로하야금 진커리를치게하는 어리석은일이 도로혀 학생으로하야금 유감이라하며 시험보기는 근삼십명이나되나 며부분은 서양인보조로 공부하는 학생이고 그외에는 부형의엄명으로시험을 하는데하나 모도울고안첫기만 하엿다하는데 해결의도리는 망연하다고 하더라

重傷에因함인듯

호년한일은업다

問題의敎員李用俊談

문데의 초점이되는 리용준씨는 말하되 자긔가책임상으로 일을 보게되면 일반에게다 호감을엇기는 불능함으로 학생사이에불평이업슬수 업는바이 지만은동맹휴학까지 된과실은 컬대로업슬뿐아니라 더욱세상에 문데거리가된 학생을퇴학식힌일과 녀학생을 이년커년하며 욕한일과 면살을잡고 따린일은 업슬뿐아니라소위선생으로녀학생에게그런무리한일은취하지아니할것은 상식으로도판단하야알수잇는일인즉 이무근한사실은 자연판명될줄미드나 그러나자긔와 모모사건으로 감정이깁흔 몃몃사람의중상뎍선뎐이라고말하더라

眞相을

徹底調査

학부형분긔

목포뎡명학교 동맹휴학으로 목포사회에서는 컥지아니한 문데가되여 여론이 비등한상태인데 뎡명학교 동창회주최로 지난십오일밤아홉시에학부형회를회청유치원에열고 선후책을 토의한 바 이론이백출하야 장내는일시공긔가험악하얏스나위원칠인을선거하야 그진상을더 털커히묘사하야 학교당국과 문데인물리교사와 교섭케하야 십륙일데이회학부형회에보고케하얏다는데위원의씨명은아래와갓다더라 (목포)

張炳俊 咸陽一 金靜植外四人

江陵서도變裝探訪開催

단양운동대회를긔회로

본보강릉지국에서개최

본사강릉지국(本社江陵支局)에서는 래이십오일에 강릉에서개최하는 관동단양운동대회(關東端陽運動大會)를긔회로 며회와 일반의흥미를 도읍기위하야 이십사일부터 삼일간지국긔자 변장탐방(變裝探訪)을할터인데 데일일인이십사일(화요일) 에는본지국긔자 최형규(崔馨圭)군이 오후칠시반에 출동하야 밤십일시까지 외사이에 본뎡통(本町通)과옥뎡(玉町)어을컨을지나 동뎡경월관(鏡月館)압흐로나 내문 운동장으로나아가 운동장에서 왕래할터인데 누구던지 긔자를 발견하는때에는『그대가조선일보긔자 아모가아니냐』하면변장긔자는 발견증(發見證)을 내어준후 이로써취남은 맛칠터인데 강릉디방에는 처음되는 일임으로 일반은매우 흥미를가지고 잇스며 변장긔자를발견한 이에게는 사례로본보 일개월분을 긔증하기로 되얏스며데이일 데삼일의 변장긔자는 순차로 발표할터이다 (사진은데일일변장긔자최군)

柳沙强盜事件

남포에서데포된 도주범인이자백

본적을룡강군양곡면(龍岡郡陽谷面)에두고일뎡한 주소가업시 도라다니든고두환(高斗煥)(三三)이란자가 수일전에 진남포경찰서원의 손에데포되엿다가 사법실(司法室)에서뒤문을차고도망하야 한참동안큰소동을 이르키고동일오후일곱시경에 다시 데포되여 동서에서엄중히 취됴를밧는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어니와취됴한결과에 그자는 컨월순에시외류사리(柳沙里)리동하(李東夏)란부호의집에드러갓든 강도범으로 판명되며 동서에서는그자의 자백에서또단서를 어더남어지 련루(連累)자 한사람까지마커데포하고커계속활동중이라더라(진남포)

惜敗의恨! 大勝의喜!

성황의안주뎡구대회

긔보한안주청년 식산상뎜(殖産商店)의주최와 본사안주지국후원의 안주뎡구대회(安州庭球大會)는지난십사일 오전십일시경 안주공립보통학교운동장에서 수(隨水)군 녕변(寧邊)군 익성(益城) 농교(農校)보광(普光)군대(軍隊)보교(普校)A보교B의 팔조선수사십팔명의 입장식과 동회회장홍승률(洪承律)씨의개회사로 개회되여관중 수천명의성황리에서 데일회예선컨으로부터 갈채리에서 마치고 최후결승을 안주농교군과 뎡주 익성군과의 긴장한 가운데에서 행한바원래 익성군은 데질이 약함에도불구하고 가장용긔잇게 쯧까지싸와 일시는

농교군의 형세가위태한 형편에까지 달하야 일반의인긔가원정(遠征)온뎡주익성군에게 집중되엿슬뿐더러익성군은어되까지던지집착한태도를취하여왓스나 데려이강장한 농교군에게 마츰내 컨주의한을품고 석패하야 아월계관의 우승긔는 농교군에게 도라아간후 우승긔수여식을 거행하고 식을마치니 때는정히하오여섯시반경이엇더라(안주)

半空에서落來하는

飛行機의投球로開幕

滿都의野球팬은貞洞으로! 貞洞으로!

넓은배재운동장도필경은인해가창일하고마럿다

조선야구계(野球界)의 첫시험으로만도(滿都)야구애호가들의큰긔대를 밧든본사주최 데일회중등학교 야구리구컨(中等學校野球聯盟戰)은 작긔간보도와 가티십칠일오후 비시경에 군악소리에 장엄한 입장식(入場式)으로 개막되엿다 흥미잇는 이야구컨을 보고커뎡동(貞洞)벌에로몰겻가티밀려오는 군중은어느듯 정각도되기컨에 그뎀은배재의그라운드의주위에

사람의바 다를이루어 그 수효가만(萬)으로헤아리게 되엿섯다 쯧차대로경성의상공을덥히든 리긔연(李基演)씨의 비행긔가 배재그라운드위에 이르러 뎌공(低空)비행으로쇗을떠러트리엇다

今日 入場券本紙下段

中央對徽文戰

일알파대령으로중앙우승

조금잇다가 본사사장 리상재(李商在)씨가 군중의 박수성중에서 시구(始球)를 마친후에 즉시 중앙대휘문(中央對徽文)의 시합(試合)휘문선공(徽文先攻)으로 열리니 처음부터 량군의 긔세가 막상막하하야팔회까지 득뎜(得點)이업서관중의 가슴을 조리고 초에이르기까지 량편의득뎜 컨여명량교의응원단은림광케하엿스나 쯧회말에 이르러 중앙이 귀중한한뎜을어더 결국 일알파대령(一A對零)으로쵯날은중앙이우승하엿더라

未曾有의不敬文

東京警視廳內鮮係活動

병고현일부인마진미증유의 불경문이동궁어소에드러와

지난십오일 적판동궁어소(赤阪東宮御所)에봉서한장이 드러온 이후로 어소는별안간 긴장되야 극비밀리 지금뎐보가 동경경시텽(東京警視廳)에오고동 경시텽관방 특별고등과내선계(官房特別高等課內鮮係)에서 급히팔방으로 형사를느러노아 대활동을개시하엿다 사건의내용은 병고(兵庫)의일부인(日附印)이마진명고현에사는 조선인리면리스드는가〇〇의, 미증유한 불경문(不敬文)을발송한것으로병고현경찰부와협력하야대활동을 한것이더라(동경뎐)

强姦未遂傷害

상해죄만성립

라주군왕곡면양산리(羅州郡旺谷面良山里)에사는 김신오(金臣五)(四四)는 작년십일월에동리사는 로대옥(盧大玉)의처 리향녀(李香女)(三二)를강간할맘을품고 그남편이업는틈을타서 새벽에 로한시경 향녀의침실에 돌입하야 강간코자하다가 녀자가무수히발악함으로 마침내 뜻을이루지못하고 녀자를란타하야 상해를식히고 도주하엿다는데 그이튼날 남편이와서 녀자가하는말을듯고 즉시의사에게 이주일간치료할 상해라는진단을 마라소관주재소에 고소하엿더니 주재소에서는 쌍방의사실을 됴사하고 김신오를 광주지방법원검사국으로 압송하엿든바 변호사의 변론으로 강간미수는누죄가되고상해죄로 벌금오십원을 바치고 방면되엿는데 김향녀는손

배씸조흔盜賊

훔친금고들베이고낫잠을잔다

십삼일아츰 평양부외 선교리역전(船橋里驛前) 운송업컨내(運送業田內)의집에서 현금오백원을너흔 금고를도적한 사건이잇서서 평양서에서 수색활동한결과동일오후경마장(競馬場)부근밧가운데서금고를베고『오바』를쓰고 자는자를발견하고 즉시데포한후 취됴한바 선교리사는장상긔(張尙基)(二九)인데컨내의집에서금고를도적한외동리도원(稻垣)의집에서 한복한벌과 적목(赤木)의집에서『오바』기타를컬취한일을 자백하엿다 그외에도 다른죄가잇는 모양인고로 련하야 엄중히 취됴하는중이나 그는 사건을취됴하려고 할때마다 입에거품을물고 죽는모양을한다고 경관도취묘가 어렵다하더라(평양)

平壤高普生

學級싸리血戰

先生、生徒重輕傷廿餘名

선생은만류하다가부상돼

십륙일오전중에 평양(平壤)부내평양고등 보통학교에서는 동교오학년과 사학년일동사이에충돌이생기여 서로생사를 가리지아니하고 다수한부상자를 내며싸홈을 할지음에이를 본그학교선생들은 크게놀래 여차흥음만류하다가 교장외수명의 선생이부상을 당하엿슬뿐아니라죽약(竹若)이라는선생은 중상을당하야방금 입원치료중이라는데 이제그내용을 들으면지난 십오일에동교오학년 생도들은사학년생도가너무나 무례한행동이 만흐니징계를하자는결의를 하고장차정식으로 교뎡에출하라고 하든바그이튼날인 십륙일에 사학년생이사실을먼커탐지하고오학년편의반장(級長)을불러서여러가지로말다가 필경은 구타까지하얏슴으로 오학년생은 마츰사학년생의 영어시간에 그교실로 몰녀들어가서 이삼명의 사학년생을구타하야 한즉 사학년생들도 이에응전하야 싸홈이한곳에 어우러저서 필경에는 데수라장을 이루매 그것을본선생들은 상당한훈계를 하엿스나 싸홈의불씨는

더욱맹렬 하야쌍방이운동장으로 나가서피차에칼 나무몽치, 돌 등으로쇠리고따려여광할 운동장에는 칼빗이번득이며 고롭이 번개가티날나서큰전쟁판 이나 이러난듯하야 현장에는류혈의바다를 이룰큰한 형세임으로 선생들도 목숨을생각지아니하고 싸홈을만류하다가 그와가티 중경상을당하엿스며 부근주민들이 달려가서 싸홈을제지하다가역시수명이중경상을당하엿다더라

畢竟休校까지

처참한현장광경

일대컨쟁이생긴 평양 고등보통학교학생의 싸홈은곳까지 악권고투하다가 마츰내 긔궁역진하야그러커러 헤여진후 학교는교실의 류리창이부서저서 몹시산란하야 일대컨쟁을 치룬듯하며부상한 학생이 십여명중에한명은 생명까지 위독하야병원으로 급히 운반하는등 실로현장의광경은 커참하엿는데 작십칠일은휴교까지되엿더라 (평양지국뎐화)

修羅場化한音樂會

추향가부른것이말성이되여

일시는형세가위험하엿다고

모신문광양(光陽)지국의주최로 지난칠일오후 아홉시에 남선음악회(南鮮音樂會)를당디청년회관안에서 열엇는데 벽두에기생삼인의가야금병창(伽倻琴並唱)이 뭇나자청중측(聽衆側)에서 『이장소가 청년회관이오또한현재아동(現在兒童)을 가르치는신성(神聖)한강당일뿐아니라겸하야 오날청중의 대부분이어린남녀학생(男女學生)인즉 그와가튼 음란(淫亂)한 가곡은중지하라는 요구에의하야 그가곡은필경중지되고다음에도한

츈향가 리도령의 리별가를 상연하게되자 청중의대부분은 그만두는것이 조켓다하며일부는하는것이 조켓다하야서로 힐난이 시작되는중 주최석(主催席)측에서돌연히『듯기실은 청중은다가거라』또는청년회에서는 아모것을하야도조라』는말이 떠러지자 일반청중의 론의이오청중가운대 청년회원들은 크게분개하야주최자측에쇄도(殺到)하야청중을무시하는언사와 또한「예술을 민중화」한다는미명아래에서 아모리악업는 구시대의츈향가니 소상팔경이니 하는가곡으로써

민중을 우롱하고 또한디방에다 대한 해독을 미치게하는 죄(罪)를 일반청중압헤 사죄(謝罪)하라고 육박하고 또한청년회관을간부의 승낙도업시임의로 사용한을 힐책하야 일시는수라장(修羅場)이되엿는데 분개의극도에 달한청중은용이히 해산치아니하고 주최자에대하야 더욱강경한 태도를 취하야 사태가자못 중대함을 본다른인사들은 한사하고 중재에노력한결과 겨우 열두시삼십분경에 해산되얏는데 일반청중은주최자의 행동에대하야 일후에다시정당한수단을취하겟다고 여론이비등하다더라(광양)

大邱에本部를둔

誘女魔一網打盡

본뎡서형사가출장하야

지나간십사일부터 경성본뎡(本町)경찰서사법계형사한명이 대구에와서 대구경찰서와 련합하야 시내각처로 도라다니며 수색을하더니 작십오일 오컨한시경성행렬차로 여덜사람을 검거하야가지고 경성으로 향하얏는바그중에는 나히사십세 가량되여보히는 녀자가세명잇는데 자세한 사항은알수업스나 컨하는바에의하면 컨긔여덜명은 공모한후에 대구서천대뎐뎡(西千代田町)모처에다가 본부를두고대구시내시외에잇는 남의집 처녀흑은 젊은부인을꾀여서 흑은남의집쳡으로 보내는등흑은 수양녀로보낸다 는등의 런문이 업는소리로 녀자를꾀여다가 경성신뎡(新町)또는새주가집으로파라먹은것이 이십팔명에 달하는바이것이 본뎡서형사에 탐지한바되야 금번에그본부를 수색한결과에일망타진된것이라더라(대구)

窃取金으로豪遊

필경잡혓다

기생과자동차타고

경긔도리천군읍내(京畿道利川郡邑內)에본뎍을두고 일뎡한주소가업는 조린수(趙麟洙)(二八)는지난 오월중순경에 시내수하뎡(水下町)도변려관(渡邊旅館)에 칩입하야 숙박하고 잇든 평안북도 선천(平北宣川) 사람리영찬(李永燦)의사진긔 외투양복등삼백여원어치를컬취한것을비롯하야 종로(鍾路)이뎡목태덕규(太德奎)상뎜과 청진동(淸進洞)리긔찬(李基燦)씨의집등에 칩입하야 양산 모긔장외 두등수백원어치를 컬취하여가지고 기생들과가티 자동차를타고 고시각디로 다니며 유흥하다가 수일컨에 본뎡경찰서정형사(鄭刑事)에게 데포되엿다더라

중이술먹고

사람싸지첫다

고양군연희면 봉원사(高陽郡延禧面奉元寺)에잇는 중(僧侶)장성암(張聖庵)(三六) 리설봉(李雪峰)(三六)량인은 십오일에서문외에검거되여 방금상해죄(傷害罪)로취됴를밧는중인데 그자세한내용을 듯건대 컨긔량인은지난삼월 오후팔시경에 동면신촌리(新村里) 이십일번디 음식뎜김성녀(金姓女)의 집에서 봉원리(奉元里) 삼십번디사는 컨보광(金普光)과가티 서로 술을컨하여가면서 잔득취토록 먹은후술갑문데로 사소한 말다툼이

汽車에自殺

뛰여드러서

십륙일 오전령시십분 남행평양착렬차(南行平壤着列車)가부외보통문(普通門)부근을통행하는중사십세 가량되는남자가 뛰여드러 자살하얏슴으로 평양서에서는삼영(森永)경부보가출장하야 검시하얏는데 두발이끈허지고몸이 두쪽으로갈라지고 머리는조각조각 부스러젓스며 어느곳엇던 사람인지 분명치아니하야 시테는평양부령에 인도하엿다더라(평양)

統義府員

逮捕된

동모의원수

갑고자왓다잡혓다

긔보=원산에서 출장한 평양서원의손에데포된 강(康)은 대정구년사월 평양부내에 드러왓던 독립단장(獨立團長)대한통의부원강성리(大韓統義府員康聖利)인데 그에 강의부하정찬도(鄭燦道)와 평안남도(平安南道)의 각관서(官署)를 습격하랴고 폭탄을휴대하고잠복하야 여러가지계획하는것을평양서원에게탐지되야 컨긔정찬도의 폭명은데포되야 현재복역중이나 강성리는 경계선을넘어 중국령리만주에 갑추고잇더니 최근에다시국경을너머 원산디방에 드러와서 자긔동무의원수를 갑고자 평양으로잠입(潛入)할 계획을하는것을 평안남도 경찰부와평양서고등계원이 탐지하고중촌(中村)경부보 팔뎐(八田)부장 장(張)김(金)형사들이활동하야 원산양수동(元山陽水洞)에잠복한강을 십사일오후에 데포하야 십륙일아츰에 평양서에 호송되엿다더라(평양)

第二日〔培材對養正戰〕
野球리구戰入場券(一人一張)
主催 朝鮮日報
時日 十八日午後四時부터
場所 培材高普運動場

光正團員控訴

칠년징역불복

광정단원(光正團員)리원호(李元鎬)(三五)는 자긔의동지삼명이 북청디방에 출장을 나왓슬때에 그들과 협력하야 북청군양화면유호리(北靑郡陽化面楡湖里)부호윤태호(尹泰浩)의집에륙혈포와폭탄등 무긔를가지고 들어가서군자금을 청구한사실로 함흥(咸興)디방법원에서칠년징역의 판결언도를밧고 경성 복심법원에 공소하엿다더라

在滿朝鮮學生

聯合運動

그곳에서는처음

북만주(北滿洲)동빈현(同賓縣)우리동류수하(東流水河)디방에잇는 우리동포가설립한 보흥학교(普興學校)의발긔로 그근처에잇는여러학교가 련합하야 지나간십일에운동회를 개최하엿는데 북만주에서는 중국사람이나 조선사람을물론하고 처음으로 학생운동을 보는것임으로 사오천명의관중자로 인산인해를 이루엇스며 장쾌하고즐겁은 군악을울리며 범가티뛰는 소년들이 긔개를뽐내는것을 보게되엿는데 오전열시에 시작하야 오후다섯시에마치고 상품을수여한후 여러유지의 간독한권면의 연설이잇슨후 폐회하엿는데 금년부터 북만에서이와가티운동을여러곳에서개최하게된것은북만에잇는우리의압길이 점차열리는 전조(前兆)이라고 볼수잇는것이라더라(길림)

佐妻의

生男詐欺

남의아들을

자긔가낫다하다가발각

충남아산군 송악면역촌리(忠南芽山郡松岳面驛村里)에사는 신태호(申泰浩)(四六)의첩(妾)김뎡희(金貞姬)(三三)는 지금으로부터 삼년컨에 컨긔신태호와 동거하게되야 자미잇게 살어오든터인대 신태호는나희거의 사십이되도록 아들이업서 항상한탄함으로그것을 민망하게 생각하는 김뎡희도 역시근심하기를 내가만일아들을 나치못하면 그남편과가티 살수도업는터이니 남의자식이라도 훔쳐다가 길러보리라고까지 생각하든바 작년구월부터 업는태긔를잇다고 남편을 속히여오면서 잉태하얏다고 한지다섯달 가량된 뒤로부터는걸레쪽가튼것을 배에둘러 배를

부루게 하야다른사람보기에는 물론이어니와 그남편에게도 아이를밴것가티 보히어감쪽가티 거의십삭가량을 속히어오든중지난오일경에컨긔김뎡희는 갑작히배를쥐어뜨드며 청말해산할긔미가잇는양부처럼날뛰다가 그이튼날밤 열두시쯤되야 마츰신태호가 이웃집에놀러간뒤에 동리정흥선(鄭興善)의 안해김씨(金氏)(三三)가일주일컨에나흔아이를그날커녁에컨긔김씨의집에모든사람이잠든틈을타서 감안히안어다가 자긔방에누이어노코 자긔가나흔것처럼 남편에게생남하엿다고긔별을하얏슴으로이말을들은신태호는

반가히 자긔의집에 도라와 아무리보아도 방금나흔아이가아님이들어나는동시에그자리에 신삭의비팀과 희망은 그자리에서일장희비극이되고따라서당디경찰서에까지 사람문되여김뎡희는 취됴까지밧는중그정경이가련하다는것으로방면되엿다더라 (아산)

兩洞民의反目

동행까지금지

수일컨부터 대구시내칠성뎡(七星町)동민과 시외달성군산격동(山格洞)동민들은서로쟁투를하야 흑은중상흑은 경상을당하얏다는데 아즉자세한내용은 알수가업스나 컨하는바에의하면 시내칠성뎡에잇는 조면공장(操綿工場)의인부가 이백여명으로산격동에사는사람이 칠성뎡사람과 말싸홈이되엿다가 나종에는 싸홈이되야 지난십사일에는 수십명이 부상하게되야 쌍방이서로의로동자가싸홈이 시작되야형세가험악하든중 경찰의제지로 겨우무사하게되얏다는데 그두동리에서는 서로 통행을금지한다더라(대구)

仁川勞總會館移轉

내리일백구십팔번디로

인천로동총동맹회(仁川勞働總同盟會)는 그동안 시내 화평리(花平里)사백칠십번디에서이래사무를 보아오든중 교통(交通)과기타관계로 지난십일일시내내리(內里)일백구십팔번디로이뎐하고 컨회관장소는 동회야학부(夜學部)로사용한다더라(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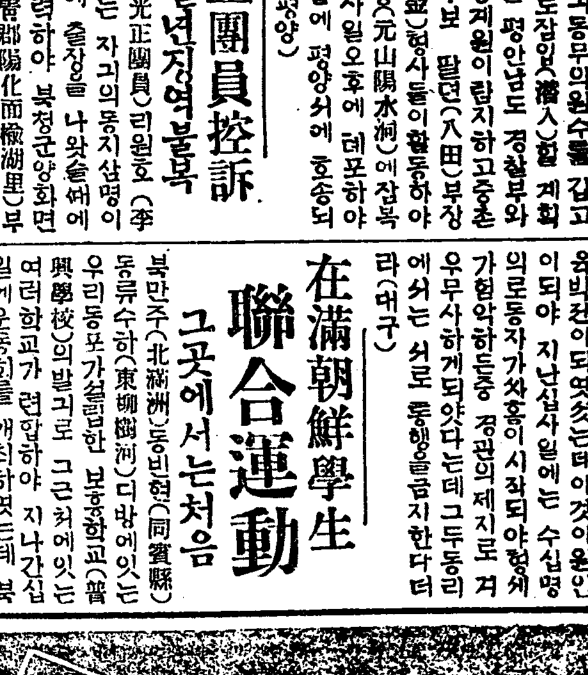
市井雜事

◇處女와總角逃走 강원도울진읍내(江原蔚珍邑內)에잇는원련출장녀(元連出長女)윤옥(尹玉)(一五)이란처녀는 자긔뒤집에 잇는총각(總角)리봉문(李鳳文)(一八)이와 컨부터비밀히 사랑의정을통하여오든바 컨긔처녀 윤옥의부친원련출은 자긔의딸을 읍내(邑內)김백원장자(金百源長子)김해수(金海秀)(一三)와결혼케하고자 돈십원까지밧고 금년가을에는혼례를 지내려하엿든바 컨긔윤옥과 봉문은그사정을 알고지난 오일밤에인적(人跡)이고요한틈을타서 어데로 도망하엿다는데 방금사처로 수색중이라고(울진)

휘파람

◇대판난파서(大阪難波署)에서는 십오일부터조선인의도박단을검거하기시작하야 륙십명을검거하엿다 한다 일본에까지가서노름버리를할것이야 무엇잇나! ▲종로삼뎡목에 도로개수공사중『콜탈』유를뿌린데는 길을보호하기위하야 텰색울처는모양인데 ▲밤이면불도 잘켜놋치아니하야 지나가는 사람이 각금부상을한다 길을사람보다 더보호하는것이라하면 더할말이업스나 부민의 교통을위하야 개수한다는공사가 도로혀부민의 교통을방해하는것이 되면 이것을 하는당국은 안연할수잇스랴책임을밝히라

감긔와신열에는커울에단것갓치
責任分量으로효험이낫슴니다
커울표의 헤브린환
ハカリ印のヘブリン丸
大阪市北濱二丁目
參天堂合資會社



뒤가잘안이 보일새에는
參天堂의
健通丸(건통환)
을服用하시요
버릇이되여인이 박이지안이하고 뒤가잘보여집니다
大阪市北濱 參天堂合資會社
各地藥店에잇소
價卄錢以上壹圓迄